

초등 고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김 수 정¹⁾

임 춘 희²⁾

김 지 원³⁾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고학년 시기인 약 3년 동안 아동의 양육지각 및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과제(2017-2020)에서 조사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육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고,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경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적응에 관련을 보이는 변인에서 학년마다 차이를 보였다. 가령, 초등 4학년 시기에는 양육지각이 학교적응과 직접적 관련을 보였으며 5학년 시기에는 아동반추가 학교적응과 직접적 관련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 6학년 시기에서는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학교적응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양육지각은 학년마다 반추와 정적 관련을 보이면서 반추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였다.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등 4학년 양육지각은 4학년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3개의 간접 경로를 통해 5, 6학년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 4학년 시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양육지각은 다양한 간접 경로를 통해 초등 6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아동반추, 양육지각, 학교적응, 초등 고학년 시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6509).

1) 군산대학교 학술연구교수

2) 교신저자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chlim@kunsan.ac.kr)

3)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시기 학교적응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Burchinal, Roberts, Zeisel, & Rowley, 2009). 특히 초등 고학년 시기는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전 시기보다 더 다양한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인 변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Santrock, 2016). 아울러 학교에서 학업의 양과 학습난이도가 증가하면서(이현민, 2005)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 따라서 최근 들어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김경호, 2020; 김두규, 강문숙; 김수은, 2013; 김수정, 정윤경, 2021; 김연수, 김수정, 2020; 김진옥, 2020; 민하영, 2019; 이귀옥, 2017; 이복희, 2014; 이정민 등, 2015; 최수빈, 유미숙, 2019).

이러한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는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양육방식이다(조용주, 최홍일, 2015).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성격, 정서, 자아개념 등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이정민 등 2015). 이런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을 중심

으로 초등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귀옥, 2017; 이정민 등, 2015; 최수빈, 유미숙, 2019).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 연구들에 의하면 초등 고학년 시기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적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보였으나,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력에서는 연구마다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가령, 이정민 등(2015)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이 학교적응의 감소속도를 완화시켜 주었고 이귀옥(2017)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적응 초기치에는 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학교적응 변화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수빈과 유미숙(2019) 연구에서는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 지각만이 지속적으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과 양육지각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재검증하고자 김수정과 정윤경(2021) 연구에서는 반추의 매개효과를 단기·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4학년과 5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 및 아동 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4학년 아동의 양육지각은 아동반추를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4학년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임과 동시에 5학년 학교적응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김수정과 정윤경 연구(2021)에서는 급격한 인지발달을 경험하는 초등 6학년 시기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만 12세 경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이 보

다 안정적으로 발달하면서 자신의 사고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comprehensive monitoring)이 더욱 능숙해지며,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일관적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Berk, 2009). 아울러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불필요한 정보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인지적 억제 과정(inhibitory processes)이 보다 발달되어 사고 능력이 더 복잡하고 효율적이 된다(Kail, 2009).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발달 능력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학교적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초등 고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횡단적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진행되었다. 민하영(2019) 연구에서는 초등 5, 6학년 아동의 양육지각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은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평가된 학교적응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한적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 수용적이며 아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동을 통제하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은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직접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반면, 어머니의 비난적이며 체벌 위주의 제한적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은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면적 자기애성향을 높임으로써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개국에 걸쳐 부모의 양육에 대한 아

동의 수용적 및 거부적 양육지각과 아동의 문제행동 및 학교수행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Putnick 등, 2015)에 의하면 거부적으로 양육을 지각한 아동들은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 문제가 증가하고 학교수행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수용적 및 거부적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이 교육적 성취에 주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Lorijn, Engels, Huisman, & Veenstra, 2022)에서는 아동기에 지각된 부모의 수용적 양육지각이 초기 성인기의 교육적 성취와 정적으로 관련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부모로부터 거부적 양육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낮은 학문적 성취와 더 낮은 수준의 교육적 성과를 보였다(Ali, 2011; Cillessen & van den Berg, 2012). 이처럼 아동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부모의 양육방식이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김경호, 2020; 김연수, 김수정, 2020; Chang & Yang, 2007; Kim et al., 2003).

Wang과 Fletcher(2016)에 의하면 수용적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은 학교스트레스를 낮추면서 학업 성적을 향상시킨 반면, 장영애와 박정희(2008)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한 초등 3학년 및 5학년 아동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에서도 아동의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학교적응과 부정적 관련을 보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종희와 김은향(2017) 연구에서도 양육을 거부-통제적으로 지각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윤정,

2017; Obiagaeri, 2018)에서도 통제적 양육에 대한 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축적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반응적 등의 긍정적 양육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거부·제재적이나 통제적, 비난적 인 방식의 부정적 양육은 자녀의 학교적응을 포함한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불만과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을 자주 보임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설은정, 정옥분, 2012), 결국 이를 통해 학교적응을 포함한 사회적응에서 문제를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부정적 양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 방식 중,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을 중심으로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연계성을 종단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부정적 정서나 고통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초점적 사고 과정인 반추가 여러 심리적 장애와 관련을 보이면서(Wolkenstein, Zwick, Hautzinger, & Joormann, 2014), 초등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부적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수정 등, 2018; 김수정, 정윤경, 2021). Shaw, Hilt, 그리고 Starr(2019)에 의하면 반추는 고통스러운 증세와 이런 증세에 대한 가능한 원인과 결과

에 초점을 두고 반복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안정된 특성수준의 반응 양식으로 개념화되는데, 이러한 반추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Spasojevic & Alloy, 2002).

Watkins와 Nolen-Hoeksema(2014)에 따르면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 즉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가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자율성만을 허용하는 양육행동으로 특징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수동적인 성향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결국에는 통제될 수 없는 습관적인 반추성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아동기 시절에 부모로부터 강도 높은 통제적 양육을 경험했을 때,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가서 반추를 더 많이 하였다(Hilt, Armstrong, & Essex, 2012; Spasojevic & Alloy, 2002).

국내에서 진행된 김수정과 정윤경(2019, 2021) 연구에서도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이 반추와 정적 관련을 보였는데, 특히 김수정과 정윤경(2021) 연구에서는 초등 5학년 시기 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이 높은 수준의 반추를 보였으며, 낮은 수준의 반추를 보인 아동들보다 학교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지현의 연구(2019)에서도 자녀의 반추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처럼 거부·제재적 또는 통제적 양육 등의 부정적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은 아동반추와 정적 관련성이 있으며, 반추는 궁극적으로 학교적응에도 부적 관련성을 보인다(김수정, 정윤경, 2021; 하지현, 2019)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부정적 양육지각과 학교적응의 부적 관련성(김중희, 김은향, 2017; 민하영, 2019; 장영애, 박정희, 2008; 최수빈, 유미숙, 2019; Putnick 등, 2015; Cillessen & van den Berg, 2012)과 부정적 양육지각과 반추의 정적 관련성(Hilt et al., 2012; Spasojevic & Alloy, 2002; Watkins & Nolen-Hoeksema, 2014)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동의 부정적 양육지각과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종단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김수정과 정윤경(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양육지각, 반추 및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초등 4학년과 5학년 시기에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등 6학년 시기는 인지 발달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시기로 자신의 사고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comprehensive monitoring)이 보다 능숙해지고 사고 능력이 더 복잡하고 효율적이 되면서(Kail, 2009), 이러한

인지적 발달 능력이 학교적응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의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김수정, 정윤경, 2021; 이귀옥, 2017; 이정민 등, 2015; 최수빈, 유미숙, 2019)에서 살펴보지 않은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과 아동반추가 초등 4학년 시기부터 6학년 시기에 이르는 약 3년 간 학교적응에 어떻게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초등 4, 5학년 시기 양육지각,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단기·종단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초등 6학년 시기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를 확장시키는 입장에서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김수정과 정윤경(2021)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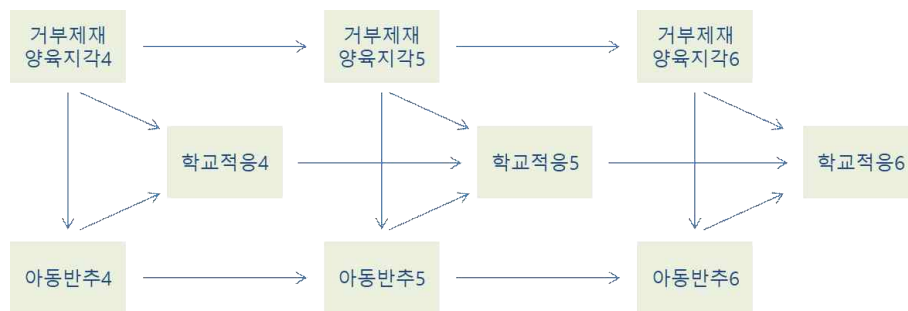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 동안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연계성을 알아보고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간접적인 세부경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 4학년부터 초등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 동안 아동의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및 반추는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초등 4학년부터 초등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의 시기 동안 아동의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및 반추는 어떠한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연구교수지원 사업과제에서 본 연구의 주저자가 조사한 종단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일 년마다 한 번씩 조사가 실시되었다. 첫 번째 조사(2018년)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 10세) 288명이며, 2차 조사 시기에 참여한 아동(만 11세)은 293명, 그리고 3차 조사 시기에 참여한 아동(만 12세)은 241명이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시기(4

학년) 또는 2차 조사 시기(5학년) 설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과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아동 등 4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아가 86명(43.4%)이고 여아가 112명(56.6%)이며,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5.68세(표준편차 3.90), 어머니가 43.43세(표준편차 3.49)로 나타났다. 형제 순위는 첫째 47.4%, 중간 7.7%, 막내 30.6%, 외동 14.3%이며, 경제 수준은 매우 잘 산다 7.9%, 잘 사는 편이다 41.9%, 보통이다 49.2%, 어려운 편이다 1.0%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부모에 대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김정(2003)이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로 아동의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온정·수용, 허용·방임, 그리고 거부·제재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거부·제재 양육지각에 해당하는 문항 10개만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가령,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 신다”, “나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신다”, “내가 야단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내시는 경우가 자주 있다” 등)은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많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에 대한 선행연구(천고은, 2014)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초등 4학년), .84

(초등 5학년), 그리고 .89(초등 6학년)였다.

아동반추

아동반추는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김진영(2000)이 제작한 질문지(RDQ)를 사용하여 아동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반추적 반응, 반성적 반응, 그리고 전환적 반응 등의 3가지 하위영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는 반추적 반응을 측정하는 12문항(가령, “나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나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리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밖에 행동하지 못할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등)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김진영, 2000)에서 반추적 반응의 Cronbach's α 는 .83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3(초등 4학년), .94(초등 5학년), .96(초등 6학년)이었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김용래(2000)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이점순(2006)이 수정한 척도로 원래는 아동보고로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고자 아동의 각 담임교사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가령,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라는 문항을 “이 아동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로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영역

인 교사적응, 또래적응 수업적응,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환경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응 영역을 제외한 4개의 하위 영역인 24문항을 사용하였다. 환경적응 영역의 문항들은 학교환경에 대해 아동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가령, “우리 학교환경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우리 학교 환경은 기분을 안정되게 해 준다” 등)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측정에서는 제외시켰다. 선행연구(이점순, 2006)에서 Cronbach's α 는 교사적응이 .83, 수업적응이 .75, 또래적응이 .73, 학교생활적응이 .76이며, 총 신뢰도 계수는 .93이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교사적응의 신뢰도는 .90(4학년), .94(5학년), .91(6학년), 수업적응의 신뢰도는 .90(4학년), .91(5학년), .90(6학년), 또래적응의 신뢰도는 .92(4학년), .94(5학년), .93(6학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는 .92(4학년), .91(5학년), .92(6학년)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5(4학년), .96(5학년), .96(6학년)이었다.

3. 자료 분석

첫 번째 자료 분석 과정으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8.3을 사용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과 아동반추는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었기 때

문에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요인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을 세 개의 문항 꾸러미로 구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학교적응의 경우 각 하위변인의 평균 점수로 산출된 네 개의 측정변인을 둔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측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χ^2 ,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TLI와 CF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간주되며, RMSEA의 경우 .05 이하의 좋은 모형, .05 ~ .08은 적절한 모형으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와 전체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5,000회를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으로 검증하였다. 각 효과의 추정치의 95% 신뢰 수준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의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Shrout & Bolger, 2002).

III. 결과 및 해석

1.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학교적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포를 평균 점수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표 1 참고), 왜도는 -0.63 ~ 1.32로 절댓

값이 3미만이고, 첨도는 -0.45 ~ 1.76으로 절댓값이 8 미만이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Kline, 2011).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학교적응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초등 4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4학년 반추($r = .47$), 5학년 반추($r = .27$), 6학년 반추($r = .26$)와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 4학년 학교적응($r = -.29$, $p < .001$), 5학년 학교적응($r = -.18$, $p < .05$)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5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4학년 반추($r = .29$), 5학년 반추($r = .36$), 6학년 반추($r = .30$)와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4학년 학교적응($r = -.18$)과는 $p <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6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p < .001$ 수준에서 4학년 반추($r = .33$), 5학년 반추($r = .25$), 6학년 반추($r = .40$)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4학년 시기 반추와 4학년 학교적응($r = -.19$), 5학년 시기 반추와 5학년 학교적응($r = -.23$), 그리고 6학년 시기 반추와 4학년 학교적응($r = -.22$)은 $p < .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외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2.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추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 모형의 모든 잠재변인을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N =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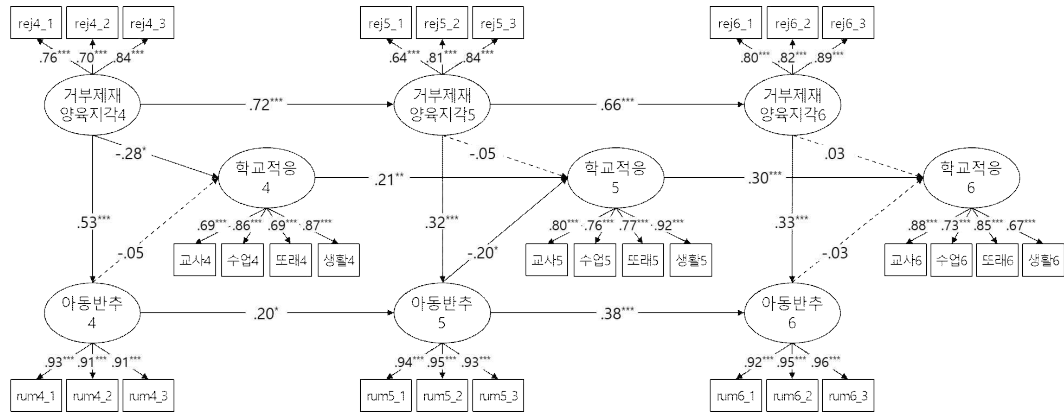
변수	1	2	3	4	5	6	7	8	9
1. 거부제재양육4	-								
2. 거부제재양육5	.60***	-							
3. 거부제재양육6	.49***	.54***	-						
4. 반추4	.47***	.29***	.33***	-					
5. 반추5	.27***	.36***	.25***	.31***	-				
6. 반추6	.26***	.30***	.40***	.53***	.45***	-			
7. 학교적응4	-.29***	-.18*	-.14	-.19**	-.11	-.22**	-		
8. 학교적응5	-.18*	-.14	-.13	-.02	-.23**	-.14	.24***	-	
9. 학교적응6	-.11	.00	-.05	-.04	-.03	-.08	.27***	.28***	-
평균	1.58	1.63	1.73	1.81	2.16	2.33	4.16	4.22	4.14
표준편차	0.57	0.56	0.70	0.83	0.93	1.05	0.63	0.60	0.64
최솟값	1.00	1.00	1.00	1.00	1.00	1.00	2.54	2.42	2.17
최댓값	4.00	3.50	4.10	5.00	5.00	5.00	5.00	5.00	5.00
왜도	1.32	1.07	1.27	1.23	0.74	0.67	-0.60	-0.60	-0.63
첨도	1.76	0.76	1.06	1.21	-0.03	-0.45	-0.43	-0.23	-0.11

* $p < .05$. ** $p < .01$. *** $p < .001$.

하였다. 각 변인은 3년 동안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측정된 동일한 측정변인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chi^2(349) = 633.675(p < .001)$, TLI = .922, CFI = .937, RMSEA = .064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였으며,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65에서 .96($p < .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한 다음, 아동의 거부·제재 양육 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370) = 698.019(p < .001)$, TLI = .915, CFI = .928, RMSEA = .067로 적

절한 수준이었다.

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되었다. 아동의 거부·제재 양육 지각, 반추, 학교적응은 이후 시점의 거부·제재 양육 지각, 반추, 학교적응에 지속적으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양육 지각이 반추로 가는 경로는 4학년($\beta = .53$), 5학년($\beta = .32$), 6학년($\beta = .33$) 시기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동안 거부·제재 양육 지각이 높을수록 반추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제재 양육 지각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는 4학년($\beta = -.28$) 시기에만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반추가 학교



주. 공분산과 오차항은 생략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표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β	B	SE	t	p
거부제재양육지각4 → 아동반추4	.53	0.81	0.15	5.34***	.000
거부제재양육지각4 → 학교적응4	-.28	-0.24	0.10	-2.33*	.020
거부제재양육지각4 → 거부제재양육지각5	.72	0.56	0.08	6.60***	.000
아동반추4 → 학교적응4	-.05	-0.03	0.06	-0.47	.639
아동반추4 → 아동반추5	.20	0.22	0.09	2.38*	.017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21	0.23	0.10	2.36*	.018
거부제재양육지각5 → 아동반추5	.32	0.69	0.22	3.10**	.002
거부제재양육지각5 → 학교적응5	-.05	-0.06	0.11	-0.52	.605
거부제재양육지각5 → 거부제재양육지각6	.66	0.99	0.19	5.12***	.000
아동반추5 → 학교적응5	-.20	-0.12	0.04	-2.61**	.009
아동반추5 → 아동반추6	.38	0.43	0.09	4.90***	.000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30	0.36	0.09	3.95***	.000
거부제재양육지각6 → 아동반추6	.33	0.53	0.13	4.06***	.000
거부제재양육지각6 → 학교적응6	.03	0.03	0.09	0.31	.752
아동반추6 → 학교적응6	-.03	-0.02	0.06	-0.28	.779

* $p < .05$. ** $p < .01$. *** $p < .001$.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5학년($\beta = -.20$) 시기에 만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4학년 시기의 경우, 거부·제재 양육지각에서 4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총 간접효과(-0.12, .008)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0.47, -.006)와 전체효과(-0.45, -.012)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은 동 시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관련을 보였다.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에서 5학년 학교적응 및 6학년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 직접적인 경로가 없으므로 총 간접효과와 전체효과는 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며, 4학년 아동의 양육지각이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0.29, -0.06). 즉, 4학년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이 5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학년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에서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총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 및 전체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6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6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총 간접효과, 전체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4학년 시기 아동 반추는 5학년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총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표 3에서 보면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효

표 3.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및 전체효과

경로	직접효과	총 간접효과	전체효과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0.24* (-0.47, -0.06)	-0.02 (-0.12, 0.08)	-0.27** (-0.45, -0.12)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5	-	-0.16** (-0.29, -0.06)	-0.16** (-0.29, -0.06)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6	-	-0.05 (-0.16, 0.04)	-0.05 (-0.16, 0.04)
반추4 → 학교적응5	-	-0.05* (-0.11, -0.00)	-0.05* (-0.11, -0.00)
반추4 → 학교적응6	-	-0.01 (-0.04, 0.00)	-0.01 (-0.04, 0.00)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0.06 (-0.31, 0.15)	-0.08* (-0.20, -0.02)	-0.14 (-0.38, 0.04)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6	-	-0.04 (-0.23, 0.13)	-0.04 (-0.23, 0.13)
반추5 → 학교적응6	-	-0.05 (-0.11, 0.01)	-0.05 (-0.11, 0.01)
거부제재양육6 → 학교적응6	0.03 (-0.15, 0.23)	-0.01 (-0.08, 0.06)	0.02 (-0.13, 0.19)

주. bootstrapping(95% CI)

* $p < .05$. ** $p < .01$.

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거부·제재 양육지각 및 반추가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총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간접효과는 모든 가능한 간접적인 경로들의 값이 합산된 결과를 나타내므로 세부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경로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즉, 유의미한 간접 경로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들이 존재한다면 총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학교적응에 이르는 다양한 간접적인 세부 경로 각각의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초등 4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초등 5학년 학교적응과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각각 3개의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통해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 및 5학년 반추를 매개로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11, -0.01), 4학년 학교적응을 매개로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15, -0.01), 그리고 4학년 반추 및 5학년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6, -0.00)에서 세부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 5학년 반추, 5학년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5, -0.01), 4학년 학교적응 및 5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

적응에 이르는 경로(-0.07, -0.00), 그리고 4학년 반추, 5학년 반추, 5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2, -0.00)에서 세부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5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5학년 반추를 매개로 5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0.20, -0.02), 6학년 학교적응에는 5학년 반추와 5학년 학교적응을 연속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09, -0.01).

다음으로 아동반추는 3개의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초등 4학년 시기 반추는 5학년 반추를 매개하여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7, -0.01)에서와 5학년 반추와 5학년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3, -0.00)가 유의하였으며, 5학년 시기 반추는 5학년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9, -0.01)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초등 고학년 시기 부모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 및 아동반추가 다양한 세부 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접 경로 등을 요약해보면, 초등 4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은 5학년 학교적응과 6학년 학교적응 각각에 3개의 간접적인 세부 경로들을 통해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학년 시기 양육지각은 5학년 반추 및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 4학년 시기 아동반추는 5학년 반추를 통해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

표 4.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 간접효과

경로	B (95% CI)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4	-0.02 (-0.12, 0.08)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0.03 (-0.17, 0.08)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0.05* (-0.11, -0.01)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0.06* (-0.15, -0.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0.01 (-0.03, 0.02)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0.02* (-0.06, -0.00)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거부제재양육6 → 학교적응6	0.02 (-0.09, 0.12)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거부제재양육6 → 아동반추6 → 학교적응6	-0.01 (-0.04, 0.03)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1 (-0.07, 0.03)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2* (-0.05, -0.01)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반추6 → 학교적응6	-0.00 (-0.03, 0.02)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2* (-0.07, -0.00)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0 (-0.01, 0.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1* (-0.02, -0.00)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반추5 → 반추6 → 학교적응6	-0.00 (-0.01, 0.01)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0.01 (-0.04, 0.02)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0.03* (-0.07, -0.01)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0 (-0.02, 0.01)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1* (-0.03, -0.00)
반추4 → 반추5 → 반추6 → 학교적응6	-0.00 (-0.02, 0.01)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0.08* (-0.20, -0.02)
거부제재양육5 → 거부제재양육6 → 학교적응6	0.03 (-0.16, 0.22)
거부제재양육5 → 거부제재양육6 → 아동반추6 → 학교적응6	-0.01 (-0.08, 0.06)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2 (-0.12, 0.05)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3* (-0.09, -0.01)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반추6 → 학교적응6	-0.01 (-0.04, 0.03)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4* (-0.09, -0.01)
반추5 → 반추6 → 학교적응6	-0.01 (-0.06, 0.05)
거부제재양육6 → 반추6 → 학교적응6	-0.01 (-0.08, 0.06)

* $p < .05$.

며, 아울러 5학년 반추 및 5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도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 4학년에서부터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과 아동반추를 중심으로 학교적응과의 연계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를 알아보았고, 궁극적으로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세부적인 간접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청소년으로의 전이시기 학교적응을 탐색하였다.

현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양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과 어떤 연계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여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서 살펴보지 못한 약 3년간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학년마다 동시대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4학년 시기에서는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그리고 5학년 시기에서는 아동반추가 학교적응과 직접적으로 부적 관련을 보였으나, 6학년 시기에서는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학교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초등 4, 5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변인들은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서 나온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반해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을 보이지 않은 현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양육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연주와 홍상황(201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양육에 대한 초등 5, 6학년 아동들의 양육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다는 이복희(2014)의 연구, 그리고 어머니의 비난적이며 체벌 위주적인 제한적 양육행동에 대한 초등 5, 6학년 아동의 양육지각이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높임으로써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관련을 보였다는 민하영(2019)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초등 6학년 시기의 발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즉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으로의 이행기에는(이복희, 2014), 전반적인 발달이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아동의 심리적 특성들과 또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개별적으로 학교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보면 초등 6학년 시기인 만 12세 경 아동은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이 그 이전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발달하여 자신의 사고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comprehensive monitoring)이 능숙해지고(Berk, 2009) 인지적 억제 과정이 보다 발달되어 불

필요한 정보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Kail, 2009) 학교적응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사건이나 증세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 등을 의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양육에 대한 지각이나 반추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각 학년마다 아동반추와 정적으로 관련을 보였으며, 4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은 동시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부적 관련을, 그리고 초등 5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은 반추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과 부적 관련을 보였다. 6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은 반추와는 정적 관련을 보였으나, 동시대 학교적응에는 직접적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즉 양육방식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초등 4학년 아동들은 더 높은 반추를 보이거나 더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보이며, 5학년 아동들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반추를 보이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반추를 보인 아동들이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초등 6학년 아동들은 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반추는 더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적응에서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아동반추와 정적 관련을 보인 현 연구결과는 강도 높은 통제적 양육을 경험했던 아동들이 청소년기 때 더 많은 반추를 보였다는 Hilt 등(201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가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자율성만을 허용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수동적인

성향을 가르침으로써 통제될 수 없는 습관적인 반추성향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Watkins와 Nolen-Hoeksema(2014)의 제안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반추와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하지현, 2019)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는 직접적으로 부적 관련을 보인 현 연구 결과는 거부적으로 양육을 지각한 아동들이 내재화 및 왜재화 행동 문제를 증가시키고 학교수행의 감소를 보인 Putnick 등(2015)의 연구와 부모로부터 거부적 양육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낮은 학문적 성취와 더 낮은 수준의 교육적 성과를 보인 연구(Ali, 2011; Cillessen & van den Berg, 2012), 그리고 통제적 양육에 대한 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연구(권윤정, 2017; Obiagaeri, 2018)의 결과들과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이다.

5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아동반추를 통해 동 시대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관련을 보인 현 연구결과는 초등 5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반추를 통해 5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부적 관련을 보인 김수정과 정윤경(2021)연구 결과와 일치되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다고 보고한 자녀들이 반추적 반응을 더 자주 사용하였고 이런 빈번한 반추의 사용이 학업지연행동의 증가와 관련되었다는 하지현(2019)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나 아동반추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관련되지 않은 현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의 양육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연주와 홍상환(20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이다. 또한 인지 발달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초등 6학년 시기인 만 12세 경 아동은 자신의 사고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comprehensive monitoring)이 능숙해지면서(Berk, 2009) 불필요한 정보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인지적 억제과정의 발달(Kail, 2009)로 학교적응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사건이나 증세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 등을 의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정적 양육에 대한 지각이나 반추가 학교적응과 직접적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외에도 초등 6학년 시기 아동들이 보다 성숙해지면서 양육지각이나 반추 이외의 또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학교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서 다루지 못한 초등 6학년 시기 양육지각 및 아동반추와 학교적응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초등 6학년 시기 아동의 인지적 발달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이전 시기의 발달 수준보다 더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은 초등 4학년에서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학년마다 각각 정적 연계성을 보였다. 즉 4학년 시기 양육방식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은 이후 5, 6학년에

가서도 부모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였다. 아마도 형식적 조작단계가 시작되는 이 시기의 아동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행동특성을 일관된 성향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도 일관된 성향으로 인지하여 지각할 수 있으므로 4학년 시기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이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동반추도 일단 시작되면 멈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Nolen-Hoeksema, Stice, Wade, 그리고 Bohon(2007)의 제안을 통해 4학년 시기 반추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이후 5, 6 학년 시기에도 반추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적응도 학년마다 정적으로 연계성을 보인 현 연구결과를 통해 4학년 시기 학교적응이 이후 5, 6학년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나온 결과 등을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주목할 만한 한 점은 반추와 학교적응 간 관련성이다. 즉 4학년 시기 아동반추와 학교적응은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다가 5학년 시기에서는 직접적인 부적 관련을 보였는데, 6학년 시기에 가서는 4학년 시기에서처럼 직접적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반추의 평균 점수가 학년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표 1 참조), 이러한 반추의 증가가 학교적응에는 부적 관련을 보일 수 있는데, 아동반추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6학년 시기에서는 오히려 학교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6

학년 시기 아동은 반추의 증가와 더불어 이전 시기보다 인지적으로도 더욱 발달되어 학교적응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사건이나 증세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 등을 의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되면서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 시기에서도 특히 초등 6학년 시기 아동의 인지적 발달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 수준은 이전 시기의 발달 수준보다 더 효율적이며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현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 간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알아보았다. 3년 간 아동의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살펴보면, 초등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동시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줄 뿐 아니라 5학년 학교적응과 6학년 학교적응에 각각 3개의 간접적인 세부 경로들을 통해 부정 영향을 주었다(표 3, 4 참조).

초등 4학년 양육지각이 동시대 학교적응과 3개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 현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단 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초등 4학년 양육지각이 3개의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통해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4학년 아동의 양육지각은 5학년 양육지각, 5학년 반추, 5학년 학교적응을 연속 매개하는 경로와 4학년 학교적응 및 5학년 학교적응을 순차

적으로 매개하는 경로, 그리고 4학년 반추와 5학년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한 후, 5학년 학교적응을 통한 경로 등으로 6학년 학교적응에 부정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 설명해 보면, 초등 4학년 시기 양육방식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은 5학년에 가서도 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여 반추를 더 많이 보이면서 동시대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통해 6학년에 가서도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아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야단치거나 비난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설은정, 정옥분, 2012), 결국 아동에게 열등감이나 죄의식 등을 조성시킬 수 있게 되면서 아동들은 더 자주 반추를 보이면서 학교적응에서도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초등 4학년 시기 양육지각은 동시대 반추 및 학교적응과 관련되면서 이후 5, 6학년 학교적응에 다양한 세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접 경로를 살펴보면, 초등 4학년 아동반추는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통해 5학년 학교적응(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과 6학년 학교적응(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에 각각 부정 영향을 주었으며, 5학년 시기 아동반추는 5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주었다.

초등 4학년 시기 반추가 5학년 반추에 직접

적으로 정적 영향을 주고 5학년 반추는 동시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준 현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4학년 아동반추가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인 간접 경로를 분석하지 못했다. 즉 4학년 아동반추가 5학년 반추에 정적 영향을 주고 5학년 반추가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5학년 학교적응이 결국 6학년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현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서 살펴볼지 못한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세부 경로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초등 4학년 양육지각이나 아동반추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세부 경로들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 4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과 아동반추가 초등 고학년 시기인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기존 국내·외 종단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아동의 양육지각 및 반추를 중심으로 학교적응과의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분석하여 학년별로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에서의 차이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세부 경로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더욱이 김수정과 정윤경(2021)의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초등 6학년의 학교적응 관련변인을 추가 분석하여 선행연구를 확

장시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초등 고학년이 시작되는 4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과 아동반추가 동시대 뿐 아니라 이후 6학년 학교적응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초등 고학년 시기인 약 3년간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에서 학년별 차이를 보인 현 연구 결과를 통해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아동들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 고학년 시기 아동의 반추와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경로를 탐색하여 제시하였을 뿐, 이러한 경로들에 대한 실증적인 설명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의 또 다른 모집단을 통해 현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경로를 재탐색함으로써 언급된 세부 경로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추후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초등 고학년 표본을 선정하여 학교적응 관련 변인 간 연계성 및 변인 간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탐색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들을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연구대상을 초등 고학년 시기뿐 아니라 중학교 시기까지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년기로의 전이시기부터 중학교시기를 포함한 약 6년간 학교적응 관련 변인 간 연계성 및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하여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 학교적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현 연구에서는 아동의 양육지각과 그에 따른 아동반추를 중심으로 학교적응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을 뿐,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은 살펴보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간 상호관련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후 연구문제들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인 초등 고학년 학교적응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발달심리학적으로도 청소년기로의 전이 시기 동안 진행되는 연령별 발달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적응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응 상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학교적응을 위한 토대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윤정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및 비행경험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39, 177-204.
<https://doi.org/10.20993/jSSW.39.8>
- 김경호 (202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등학생의 비교. *한국사회복지교육*, 51, 143-170.
<https://doi.org/10.31409/KJSWE.2020.51.143>
- 김두규, 강문숙 (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감력의 매개효과. *교육혁신연구*, 27(1), 203-222.
<https://doi.org/10.21024/pnuedi.27.1.201703.203>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은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의 관계: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정윤경 (2019). 아동기 반추에 대한 탐색: 부부갈등, 양육방식, 사회불안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2), 59-76.
<https://doi.org/10.15284/kjhd.2019.26.2.59>
- 김수정, 정윤경 (2021). 아동의 양육지각, 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단기 종단적 접근: 초등 4학년과 5학년 시기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2), 1-20.
<https://doi.org/10.15284/kjhd.2021.28.2.1>
- 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 부모갈등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사회불안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1-21.
<https://doi.org/10.35574/KJDP.2018.12.31.4.21>
- 김연수, 김수정 (2020).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융복합학회 논문지*, 11(2), 261-269.

- <https://doi.org/10.15207/JKCS.2020.11.2.261>
 김연주, 홍상황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종희, 김은향 (201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353-363.
<https://doi.org/10.14400/JDC.2017.15.3.353>
-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옥 (2020).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시간전망과 자율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2019). 지각된 어머니의 반응/제한적 양육행동,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와 학교 적응 간 구조모형 분석.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0(5), 1-12.
<https://doi.org/10.5723/kjcs.2019.40.5.1>
- 이귀옥 (2017). 성별, 자아탄력성, 학습습관과 부모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 295-322.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295>
- 이복희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4), 57-74.
<https://doi.org/10.7466/JKHMA.2014.32.4.57>
- 이점순 (2006).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 부모의 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Child Studies*, 36(4), 91-110.
<https://doi.org/10.5723/KJCS.2015.36.4.91>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
- 이현민 (2005). 초등학생의 교사행동지각과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은정, 정옥분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91-114.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조용주, 최홍일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의 간접효과. *한국사회복지*, 30, 47-70.
- 천고은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에서 정서기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빈, 유미숙 (2019). 후기 아동기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부모 방임과 학대 경향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1-15.
<https://doi.org/10.16983/kjsp.2019.16.1.1>
- 하지현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반추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i, S. (2011). Perceived teacher an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behavior of children: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and Development Studies*, 2(5), 138-147.
<https://doi.org/10.5897/IJPDS.900002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Berk, L. E. (2009). 아동발달. 이종숙, 이옥, 신은수, 안성희, 이경옥(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2008)
- Burchinal, M. R., Roberts, J. E., Zeisel, S. A., & Rowley, S. J. (2009). 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4(1), 286-292.
- Chang, C. J., & Yang, H. W.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parents-child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18(2), 5-29.
- Gillessen, A. H. N., & van den Berg, Y. H. M. (2012). Popularity and school adjustment. In A. M. Ryan & G. W. Ladd (Eds), *Adolescence and education. Peer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at school* (pp. 135-164). Information Age Publishing.
- Hilt, L. M., Armstrong, J. M., & Essex, M. J. (2012). Early family context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 ruminative style: Moderation by temperament. *Cognition and Emotion*, 26(5), 916-926.
<https://doi.org/10.1080/02699931.2011.621932>
- Kail, R. V. (2009). 아동과 발달. 권민균, 김정민, 최형성(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2008)
- Kim, I. J., Ge, X., Brody, G. H., Conger, R. D., Gibbons, F. X., & Simons, R. L. (2003). Parenting behaviors and the occurrence and co-occurr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71-583.
<https://psycnet.apa.org/doi/10.1037/0893-3200.17.4.57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ublications.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https://doi.org/10.1037/a0033266>
- Lorijn, S. J., Engels, M. C., Huisman, M., & Veenstra, R. (2022). Long-term effects of acceptance and rejection by parents and peers on educational attainment: A study from pre-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1*, 540-555.
<https://doi.org/10.1007/s10964-021-01506-z>
- Nolen-Hoeksema, S., Stice, E., Wade, E., & Bohon, C. (2007).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rumination and bulimic, substance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 198-207.
<https://doi.org/10.1037/a0033266>
- Obiagaeri, R. E. (2018). Parenting styles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mong juni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Rivers State, Nigeria. *Asian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s & Education, 7*(4), 18-24.
- Putnick, D. L., Bornstein, M. H., Lansford, J. E., Malone, P. S., Pastorelli, C., Skinner, A. T., Sorbring, E., Tapanya, S., Maria, L., Tirado, U., Zelli, A., Alampay, L. P., Al-Hassan, S. M., Bacchini, D., Bombi, A. S., Chang, L., Deater-Deckard, K., Giunta, L. D., Dodge, K. A., & Oburu, P. (2015). Perceived mother and father acceptance-rejection predict four unique aspects of child adjustment across nine countr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8), 923-932.
- Santrock, J. W. (2016). *Essentials of life-span development*. McGraw-Hill Education.
- Shaw, Z. A., Hilt, L. M., & Starr, L. R. (2019).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An integr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74*, 1-12.
<https://doi.org/10.1016/j.cpr.2019.10178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pasojevic, J., & Alloy, L. B. (2002). Who becomes a depressive ruminator?: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4), 405-419.
<https://doi.org/10.1891/088983902780935713>
- Wang, D., & Fletcher, A. C. (2016). Parenting style and peer trust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 988-998.
- Watkins, E. R., & Nolen-Hoeksema, S. (2014). A habit-goal framework of depressive rumin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3*(1), 24-34. <https://doi.org/10.1037/a0035540>
- Wolkenstein, L., Zwick, J. C., Hautzinger, M., & Joormann, J. (2014).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euthymic bipolar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60*, 92-97.
<https://doi.org/10.1016/j.jad.2013.12.022>

1 차원고접수 : 2022. 07. 04.

수정원고접수 : 2022. 12. 08.

최종게재결정 : 2022. 12. 27.

A Longitudin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Ruminatio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nd Schoo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Kim, Suche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Lim, Choon Hee

Kim, Jiw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style, their rumin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gathered from the longitudinal data(2017-2020) conduc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NRF) of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at the 4th year has a direct effect on the school adjustment at the 4th year and an indirect effect on the school adjustment at the 5th and 6th year. Children's rumination at the 4th year has no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t the 4th year, but their ruminations at the 5th year has a direct effect on at their school adjustment.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style has a direct effect on their rumin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at the 4th year has an effe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at the 6th year by the indirect 3 pathways. This results suggests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parenting style at the 4th year should be an important variable to their schoo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Keywords: children's rumination,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school adjustment, late childhood